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원각사 10층 석탑

종로 원각사(圓覺寺)

1970년대 종로는 젊은이의 거리였다. 이곳에 많은 학원이 있어 사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넘쳐났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이곳은 대학생들의 주무대였다. 1980년대 들어서 학원이 4대문 밖으로 이전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종로는 조금씩 나이가 들었다. 아직도 강남의 청년들에게 종로는 젊음의 발산지이지만 종로에서 탑골공원에 이르는 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웅기종기 모여 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는 세월을 느낄 수 있다.

현재 탑골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원각사의 옛터이다. 원각사 이전에는 흥복사(興福寺)였다.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흥복사가 있어 한양으로 천도한 태조는 기우재와 신덕 왕후의 대상재(大祥齋) 등 많은 국행불사를 이곳에서 봉행했다. 국가를 위한 국행불사 관례는 불교배척이 심했던 태종과 세종 때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배불의 영향으로 흥복사의 사격은 점점 축소됐고, 도성 안에 있었던 탓에 국가 시책에 필요한 장소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다. 세조 3년(1457) 경에는 이곳에 관습도감청(慣習都監廳)이 들어섰고, 세종 4년 8월에는 이곳에 진제소(賑濟所)를 두어 굶주리는 자를 모아 구휼했다. 지금으로 보면 무료급식인 셈인데 그 덕분에 생명을 보전하여 살아남은 자가 많았다 하니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이곳은 도성 안에서도 요충지였던 까닭에 각 관청이 탑을 내면서 사찰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자 세종 7년 호조는 이곳을 중부(中部)로 하고 관리자를 두어 얼마간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년(1464)에는 악학도감(樂學都監)이 들어섰으며, 11년(1429) 1월에는 중국 사신들이 오면 묵는 태평관을 고쳐 지으려 할 때 이곳이 거론되는 등 수난은 계속됐다.

흥복사의 수난이 끝난 것은 효령대군 이보 덕분이다. 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 법회를 베풀 때 여래가 출현하고 감도가 내렸다. 사리가 수백 개로 분신하는 이적도 일어났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세조가 10년

5월 2일 승정원에 명하여 이곳에 원각사(圓覺寺)를 세우고자 했다. 다음날 종친과 주요 대신들과 원각사를 창건할 일을 의논하고 그들을 조성도감의 도제조 삼았다. 세조는 때때로 이곳에 가 공사의 진행을 살필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흥복사가 터가 좁아진 탓으로 인근 민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세조와 영의정 신숙주는 도성 안에 있는 곳을 감안해서 가격을 세 곱을 쳐서 지불했다. 이때 땅을 매입하고 재목을 나르는 총 역수가 정포(正布)가 4천 4백(匹), 쌀이 수백 석(石)이고 보리가 100여 석이었다고 하니 중창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세조는 원각사를 크게 세우면서 사격을 갖추기 위한 불사를 함께했다. 먼저 11년(1465) 1월 16일 5만 근이 되는 종이 먼저 조성됐다.

한양에 있는 동이 부족해 개성부 경기 충청, 경상 전라에서 동을 보내와 조성할 수 있었다. 그해 4월 7일 원각사가 낙성됐고, 12년 7월 15일에는 백옥의 불상을 조성되자 함원전에 모셔와 점안식을 했다.

마지막 남은 불사가 탑이었다. 불탑조성은 13년(1467) 3월 6일 이전에 완성됐다. 일본의 승려 도은(道圓) 등이 세조를 뵈고 "원각사 탑이 천하에서 제일이라 하니 원컨대 오늘 구경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세조는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예조에 명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 탑이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3년 4월 8일을 기해 원각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베풀고 탑의 조성을 대대적으로 축하했다.

이렇게 세워진 원각사였지만 오래지 않아 수난을 당하게 됐다.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윤씨는 죽으면서 성종에게 "비록 부처를 좋아하지 않으나 내가 죽은 뒤에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게 버려두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성종 14년(1483) 8월 사람의 출입을 전혀 금지하지 않아 불좌(佛坐)의 체단(彩段)이 많이 도둑맞고 찢겼다.

연산군 11년(1505) 2월에는 이곳에 장락원(掌樂院)을 두어 기생을 양성했고, 중종 1년(1506)에는 도성 안의 절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명에 의해 중창되기도 어려웠다. 인근 백성들이 원각사의 기와는 가져다 쓰고, 관청에서 목재를 가져다 쓰면서 사격은 급속도로 쇠락해졌다.

사격이 쇠하자 대종도 수난을 당했다. 중종 28년(1533) 성 밖에 사는 관리들의 집이 도성에서 멀기 때문에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조정에 출근할 때 지각을 하게 되자 정종의 종을 남대문에 옮기고, 원각사의 종을 동대문에 옮기고 새벽과 저녁에 쳐서 들리도록 했다. 그 후 두 종은 중종 36년(1541) 6월 1일 남대문의 종은 군자감, 동대문의 종도 둘 만한 곳이 없어 훈원원에다 옮겨 놓았다. 그렇게 방치되다가 명종 18년(1563) 11월 두 종을 내수사로 보냈다.

지금 원각사 터인 탑골공원에 가면 10층 석탑이 유리창에 갇혀 있다. 불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백색 대리석으로 조성된 탑신은 비바람과 새의 분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청에서도 해

마다 부식되는 탑을 보호하기 위해 쓴 고육지책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탑이 국보 2호라는 사실이다. 일반인이야 불교에 무심해서 그런다 해도 불자들은 앞으로 잘 기억했으면 한다.

원각사 10층탑은 높이가 12m에 이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조성한 까닭에 탑신에 표현된 변상도가 정밀하다. 기단과 탑의 3층까지는 아(亞)자 모양을 하고 있고 4층부터는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각 층마다 지붕과 공포를 표현하여 목탑 형식을 띠고 있어 조선 석탑의 백미이다. 그래서 조성과 함께 중국과 일본에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조선에 오는 승려들은 이 탑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탑이지만 10층탑의 가치는 1층에서 3층까지 동서남북과 4층 남쪽에 조각된 13회의 변상도에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쪽 1층부터 삼세불회, 2층 화엄회, 3층 소제회, 그리고 4층 원통회이다. 동쪽을 보면 1층 미타회, 2층 다보회, 3층 약사회이다. 북쪽은 1층 용화회, 2층 법화회, 3층 능엄회이며, 서쪽은 1층 연산회, 2층 원

탑골공원은 원각사 옛터

고려때는 흥복사였던 곳

기우재 등 국행불사 지내

조선시대 대표탑 원각사

대리석 새긴 변상도 정밀

비바람·새똥 피해 유리각에

각회, 3층 전단사상회이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부처님과 범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13회 변상도 가운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외에 좀 특별한 것은 먼저 3층 소제회 변상도와, 4층 원통회, 북쪽 3층 능엄회, 서쪽 3층 전단사상회를 들 수 있다.

남쪽 3층 소제회는 모든 어려움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먼저 죄를 멸하고 삼재팔난과 일곱 가지 어려움을 없애 궁극에는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밀교적 의식인 네 가지 호마의 하나로 신라 말에 들어와 고려시대 크게 유행한 의례이다. 이런 소제회에 의해 10층탑은 현교와 밀교를 아우르는 탑임을 알 수 있다.

남쪽 4층 원통회는 관세음신앙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원통교주라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탑의 13회 변상도 가운데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원통회가 들어간 것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관음신앙의 중요성 때문이다. 현재



새 동 등으로부터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각으로 보호되고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관음신앙이 한국불교신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쉽게 수긍되는 점이다.

북쪽 3층 능엄회는 <수능엄경>을 설하는 법회이다. 일체의 선정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는 선종에서는 대종의 안거를 기원하기 위해 아침에 능엄회를 행했다. 그런 까닭에 <수능엄경>은 진위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종에서 중요시 했던 경전이다.

서쪽 3층 전단사상회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할 때 지상에선 부처님의 행방을 몰라 제자와 신도들이 우왕좌왕

했다. 그러자 우다야나왕이 전단향 나무로, 파사나왕이 자마황금으로 여래상을 조성하면서 진정됐고, 이것을 인도에서 불상제작의 시초라 한다.

이런 13회의 변상도를 품고 있는 10층탑을 보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가 태평하기를 기원했던 세조의 생각이 세월을 넘어 우리 가슴속에 전해진다.



김경집/지각대 교수



지금은 탑골 공원이 된 원각사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하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 꼭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감성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옷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